

개방형 기술혁신 C&D의 성공전략과 사례

2007. 1.24

**복득규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Table of Contents

- 1 C&D (Connect & Development)?
- 2 선도기업의 도입사례
- 3 시사점

개방형 기술혁신, C&D

- 자사의 지적 자산과 타인의 지적 자산을 조합해서(Connect), 더욱 뛰어난 제품을 개발(Develop)하는 개방형 R&D 방식

자사의
지적재산

C & D
개방형 기술혁신

타인의
지적재산

왜
C&D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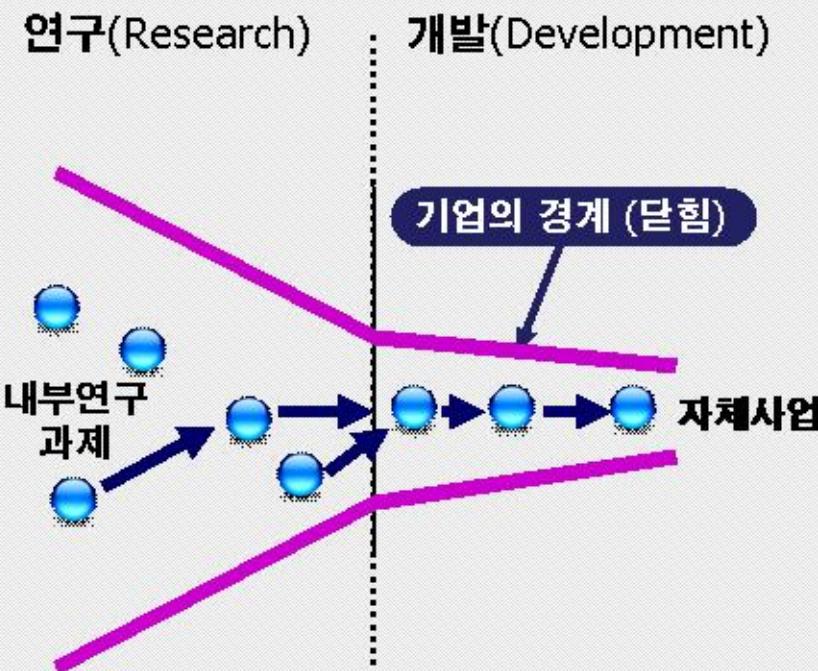
● 사내기술만으로는 혁신적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위기 의식

● 전세계 연구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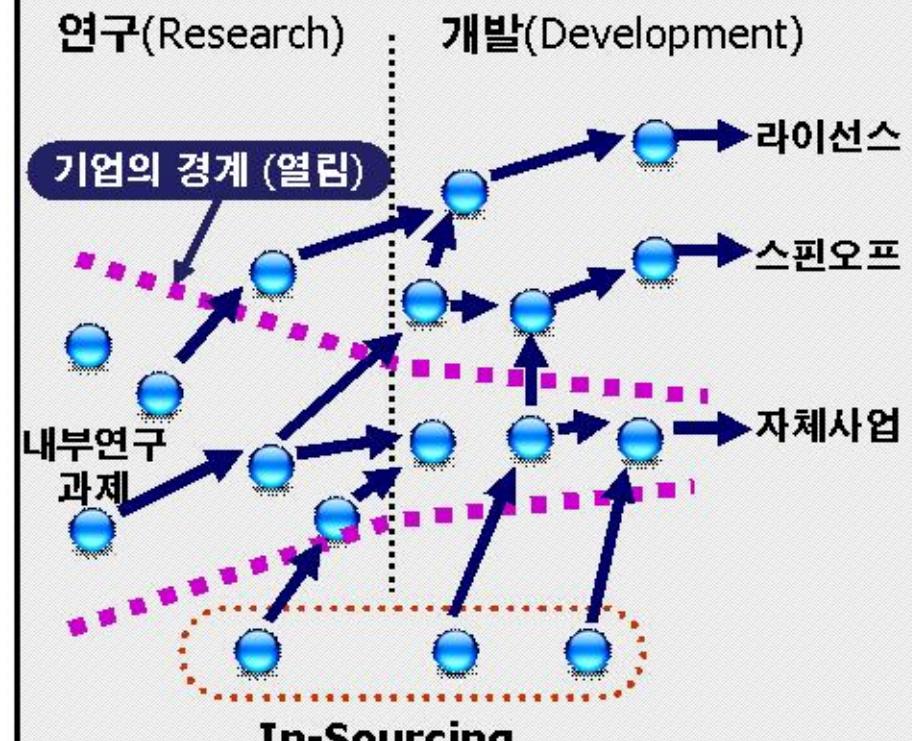
● 수명주기가 짧은 산업에서
장기 R&D 수행 곤란

'폐쇄형' vs. '개방형' 기술혁신

폐쇄형 기술혁신



개방형 기술혁신



Source : H.W. Chesbrough, HBR(2003)

기존 아웃소싱 방식과 차이

기존 아웃소싱

주로 비용절감

비 핵심 업무·기능

완성된 기술·제품의 수수
(턴키 방식)

일회성·개별적

아웃소싱 기관과
대체로 단절

내부 역량향상과
대체로 무관

목적

대상

결과물

지속성·
연계성

관계형태

역량의
축적

'개방형'에서 아웃소싱

혁신창출 및 활용의 극대화

핵심역량까지도 외부조달 가능

미완성 기술·제품의 도입 후
추가개발

지속적·포트폴리오 도입

아웃소싱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아웃소싱 과정에서
내부역량이 성장

Table of Contents

1 C&D?

2 선도기업의 도입사례
: P&G, Intel, IBM

3 시사점

C&D의 탄생신화 – 전동칫솔

P&G

전동칫솔 사업에
진출 희망,
But, 경험 全無



제품 제안

외부발명가

스핀팝(Spin pop)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후
소비자 반응 조사

저렴한 전동칫솔 개발
(타사의 1/10수준)

“C&D 탄생”

C&D의 대표 상품 – 프링글

밋밋한 감자칩 위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면?

C&D 결정
(글로벌 기술네트워크에 공개 모집)

→ 이탈리아 작은 빵집의 '식용잉크분무기술' 채택



• **프링글스 프린트 출시**
(기획→ 출시
1년 만에 마감)

C&D의 효과

Get in Touch
with Us

P&G → Share Your Thoughts

연구개발비 절감 & 수익성 향상!

P&G의
변화

순이익

2001년 \$29억

2006년 \$87억

인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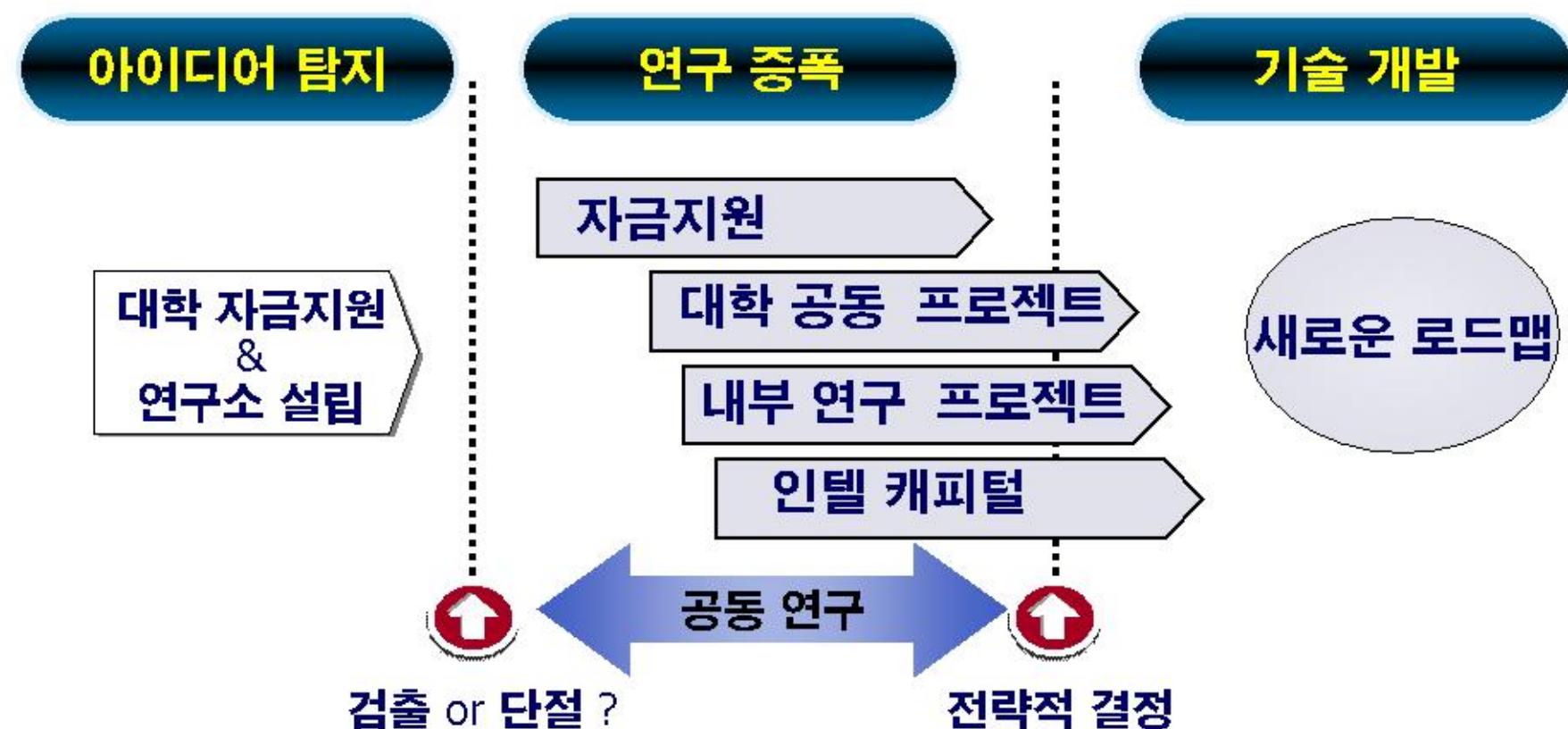
누가 개발 했나?

이익에 어느 정도
공헌했나?

→ **R&D의 개방성 중요!**

- 기업 - 대학 공동연구 : 인텔의 'Lablet'

- '01년부터 공동연구실인 'Lablet'을 버클리大, 카네기멜론大, 워싱턴大, 캠브리지大, 칭화大 등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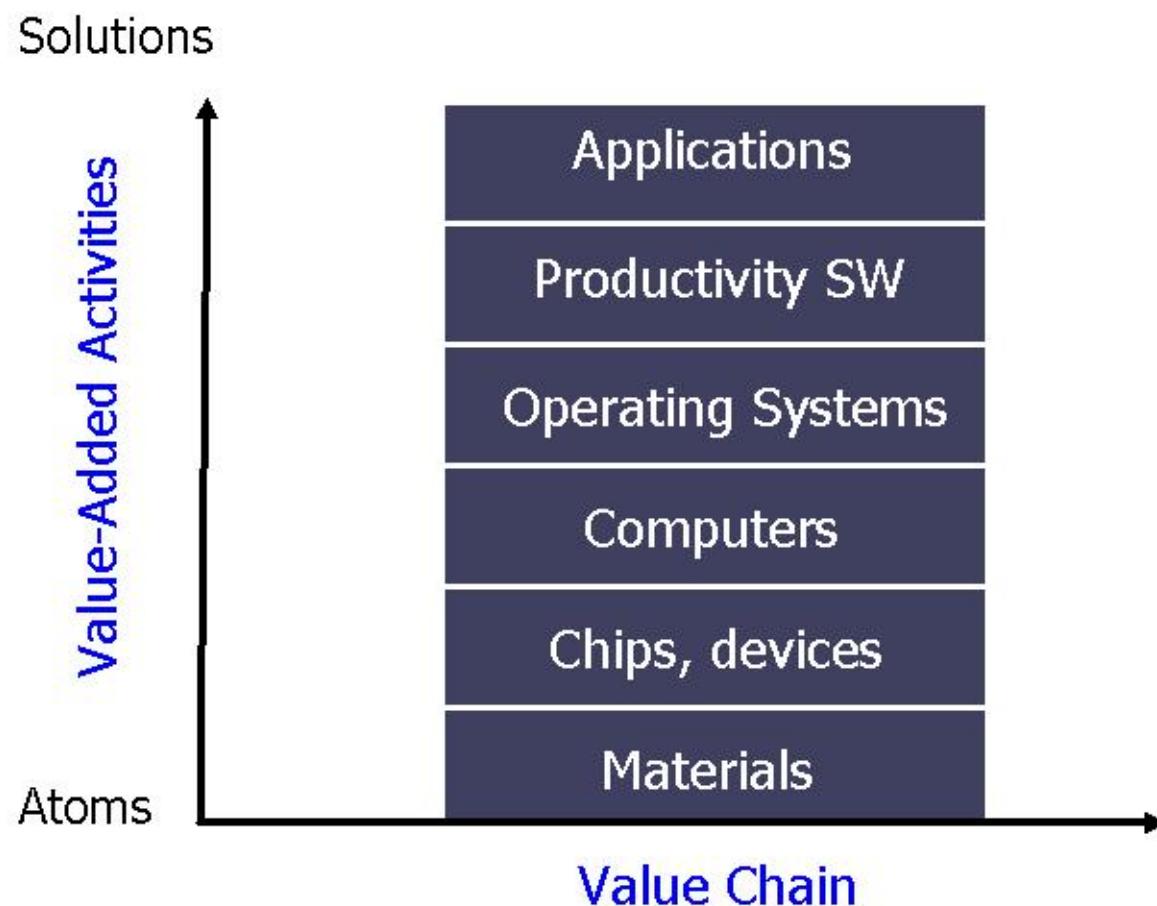
- 'Lablet'은 40명(인텔 20명, 대학 20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며, 협력교수는 2 ~ 3년 동안 대학을 휴직하고 공동연구를 진행
- 기본적으로 5년 이내로 상용화할 것을 목표로 진행시키는 연구는 사내 연구개발 조직에서 수행하고, 5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수행하는 연구는 외부와 제휴

【인텔의 Lablet 운영방식】

	Intel	대학
인 원	10-20 명의 연구원 및 관리Staff 파견	10-20 명의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 파견
자 원	매년 2-3백만 달러 및 시설과 인프라를 제공	대학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운 영	Lab Director는 인텔에서 파견	대학교수가 운영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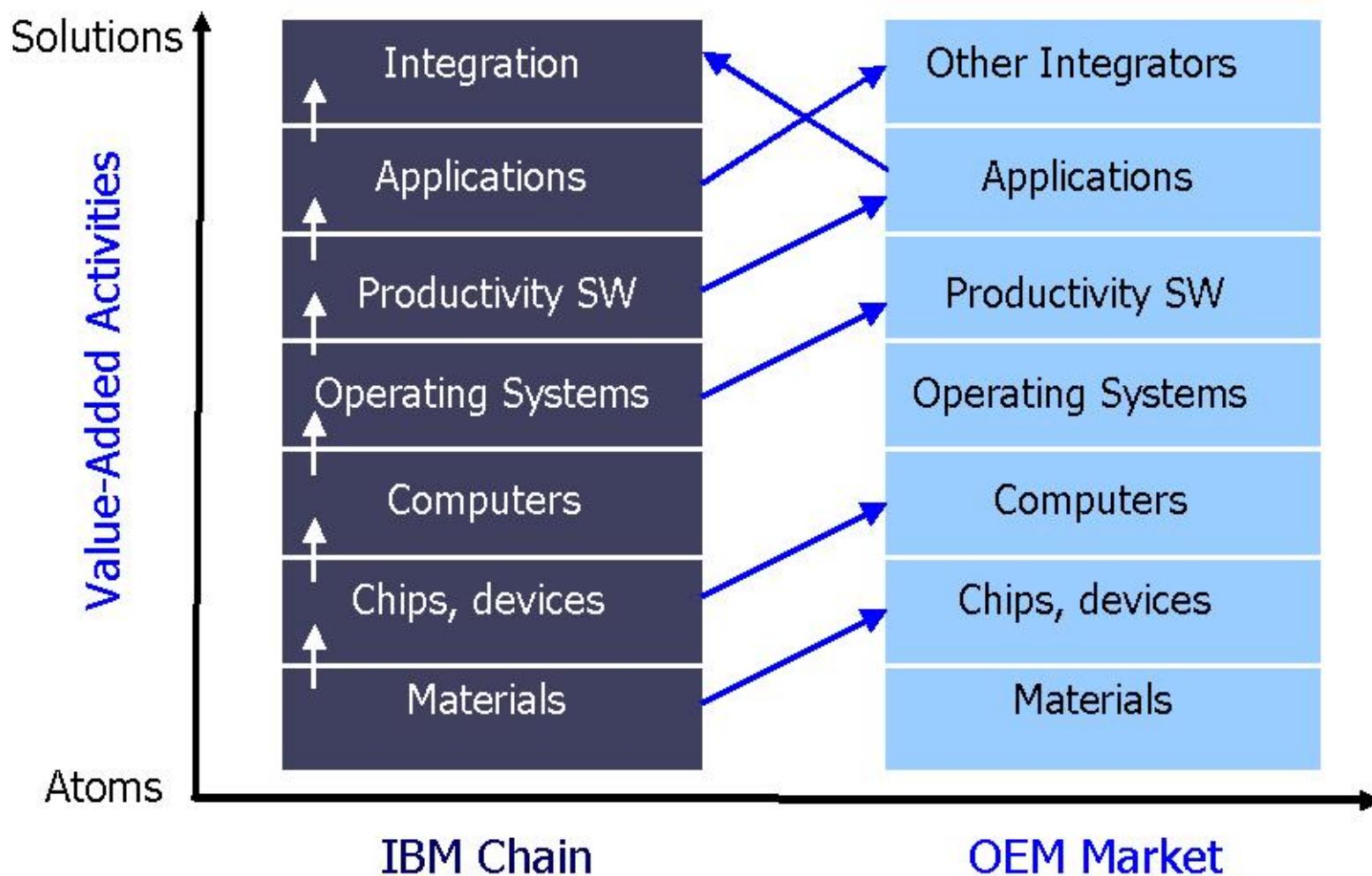
IBM's Business Model, Before

All IBM – pre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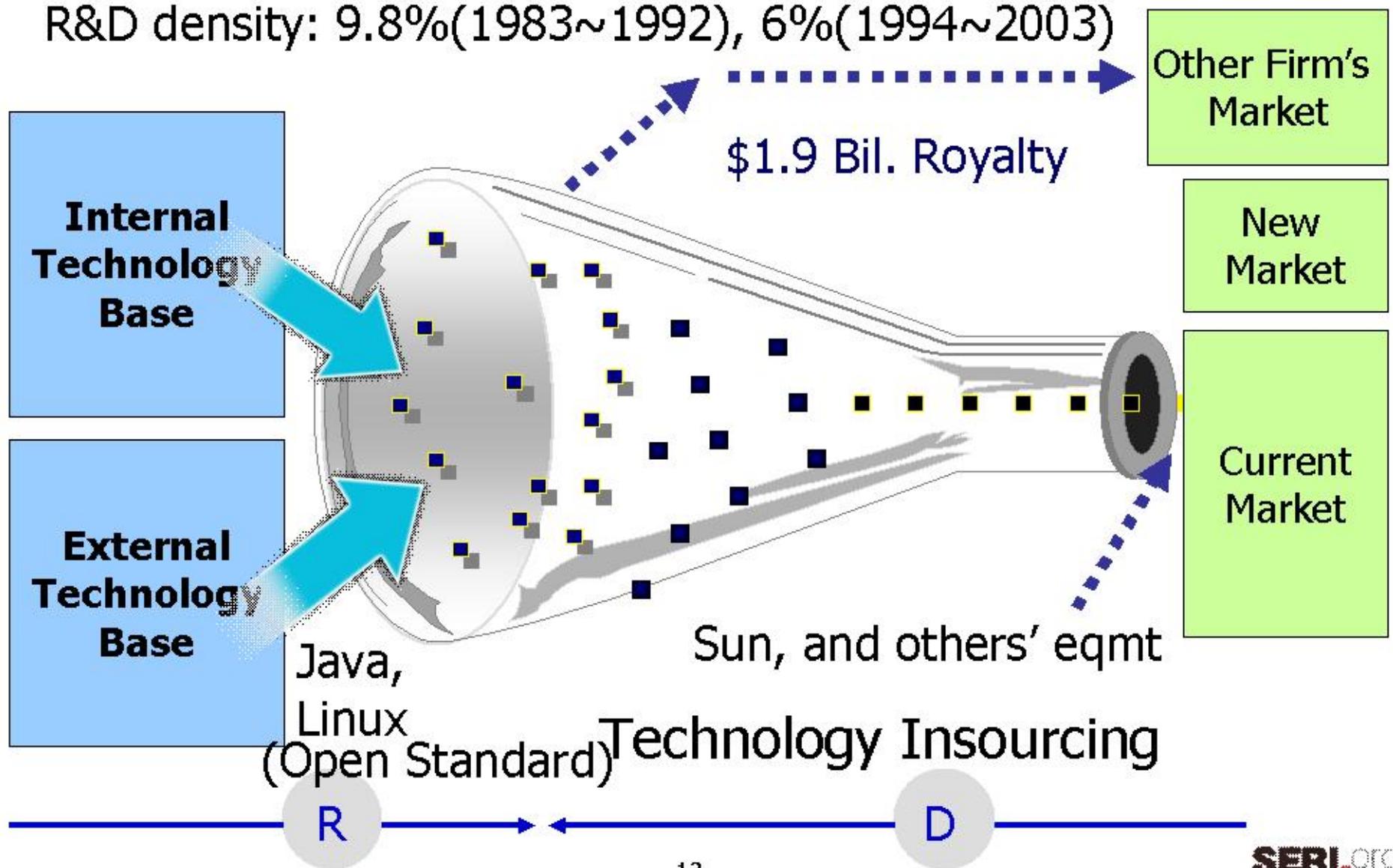
IBM's Business Model – After

From a hardware producer to a supplier of integrated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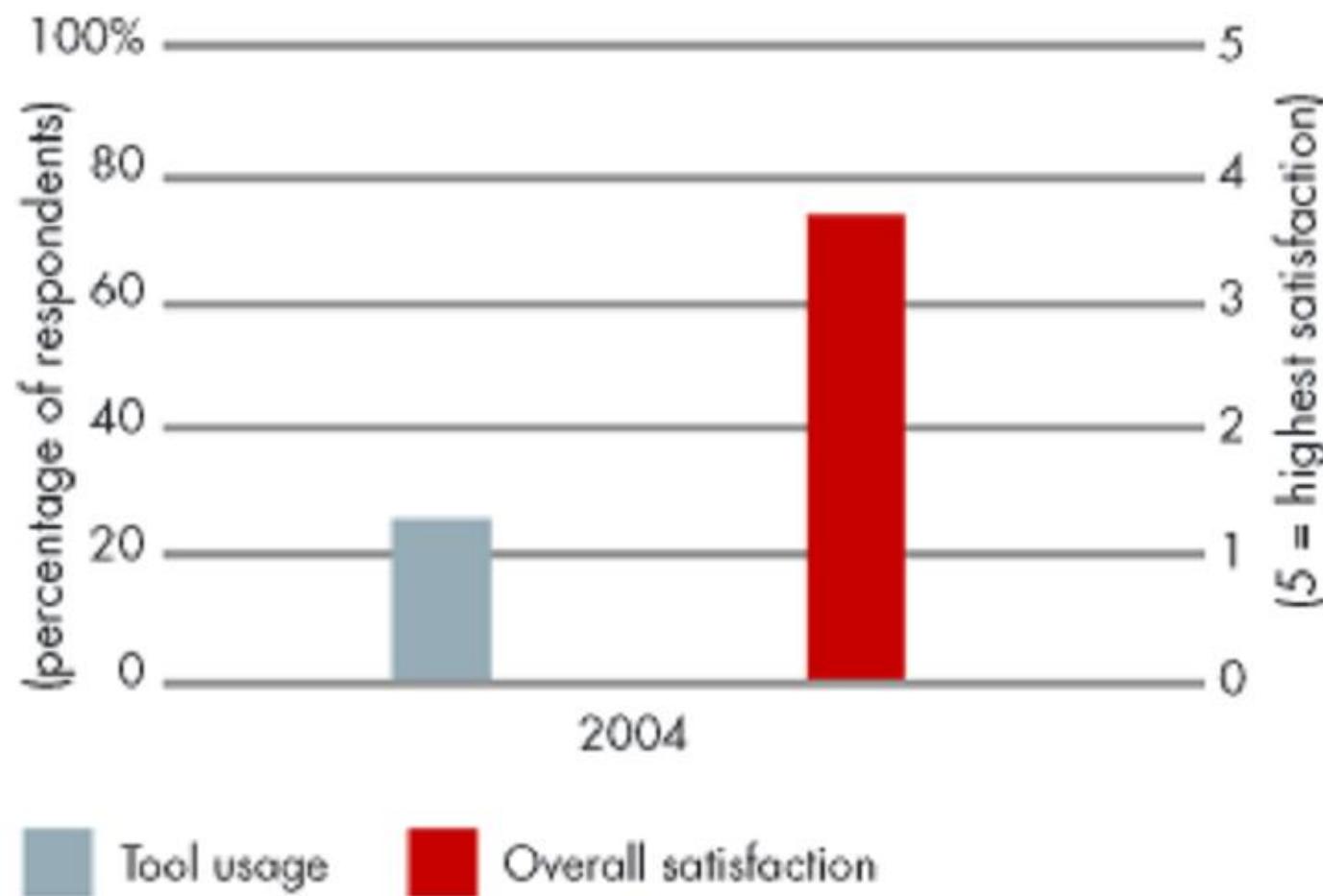


IBM & Open Innovation

R&D density: 9.8%(1983~1992), 6%(199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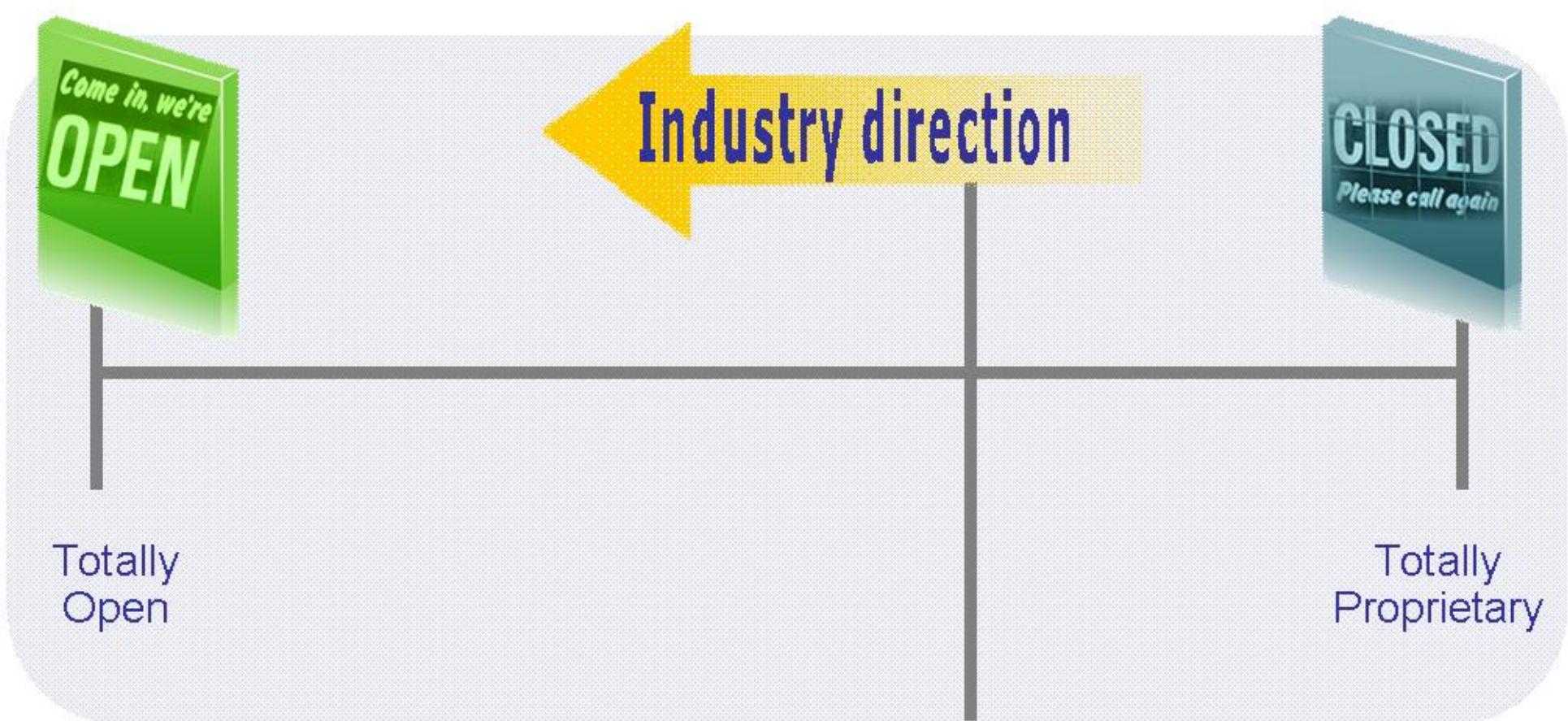


Open Innovation의 채택율과 만족도



자료: Bain & Company, 2005

The industry is seeking a new equilibrium



*Where do we need to be today to drive innovation,
solve customer problems, and accelerate growth?*

Table of Contents

1 C&D?

2 선도기업의 도입사례

3 시사점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한계에 봉착한 Fast-Follower 전략

선두주자(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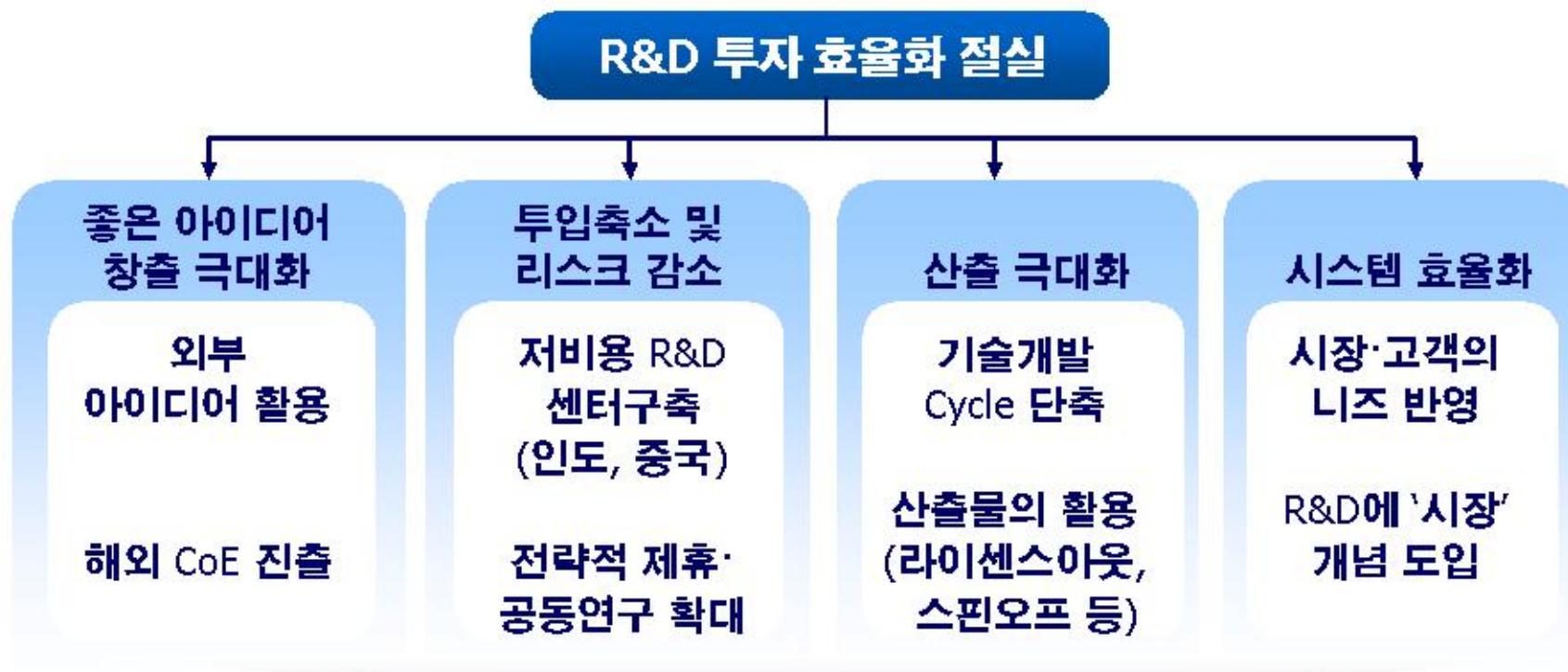
높은 불확실성
최소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대안은? 개방형 기술혁신 (open innovation)

R&D 투자 효율화 모색

- 'R&D 투자확대' 보다는 '효율화'로 기업의 관심이 전환
- 최근 R&D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모색



기술혁신 프로세스 개방을 통한 R&D 효율화를 지향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이 화두로 부상

'분산된 지식' 활용

- 전 세계에 '분산된 지식(Dispersed Knowledge)'을 활용해 기술혁신을 촉진

- INNOCENTIVE는 화학 및 생물학 관련 40여개 분야에서 전 세계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Open Knowledge Solver
- 현재 전 세계 170여개국에서 7만명 이상의 과학자가 '해결자'로 등록, 기업이 의뢰한 2백여개 해결 과제 중 60여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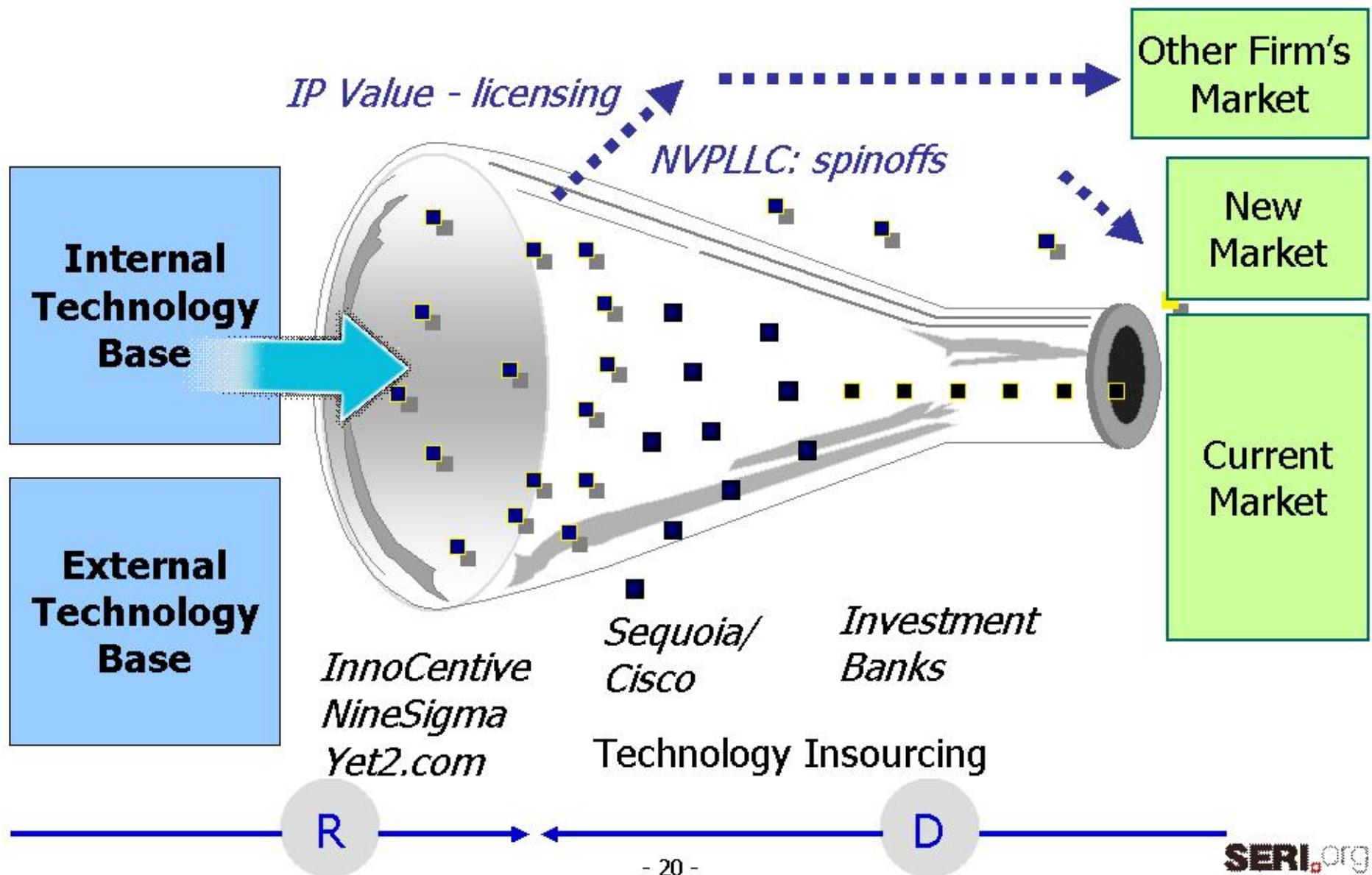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INNOCENTIVE website homepag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Company Profile, INNOCENTIVE Problem Submission, Website Usage, INNOCENTIVE User, Sponsoring Company, and News & Media.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banner with the text '환영합니다!' (Welcome) and '해결자는 아이디어 등록' (Solvers register idea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circular diagram illustrating the platform's workflow: '기업의 기술의뢰' (Corporate R&D Request) leads to '의뢰인 문제 있습니다 ...' (Sponsor problem exists...) and '해결자 솔루션이 있습니다 ...' (Solver solution exists...). A red arrow points from the '기업의 기술의뢰' section to the '의뢰인 문제...' section. Another red arrow points from the '의뢰인 문제...' section to the '해결자 솔루션...' section. To the right, there is a section titled '미해결과제 (내용 및 포상금)' (Unsolved Problems (Content and Prizes)) displaying two specific challenges:

- INNOCENTIVE 4470250**
ALS BIOMARKER
DEADLINE: NOV 06, 2008
\$1,000,000 USD
- INNOCENTIVE 4297650**
PRESSURE SENSITIVE ADHESIVE
DEADLINE: MAR 09, 2007
\$140,000 USD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buttons for '전체 해결 과제 보기' (View all solved problems), '화학' (Chemistry), and '생물학' (Biology).

Source : <http://kr.innocentiv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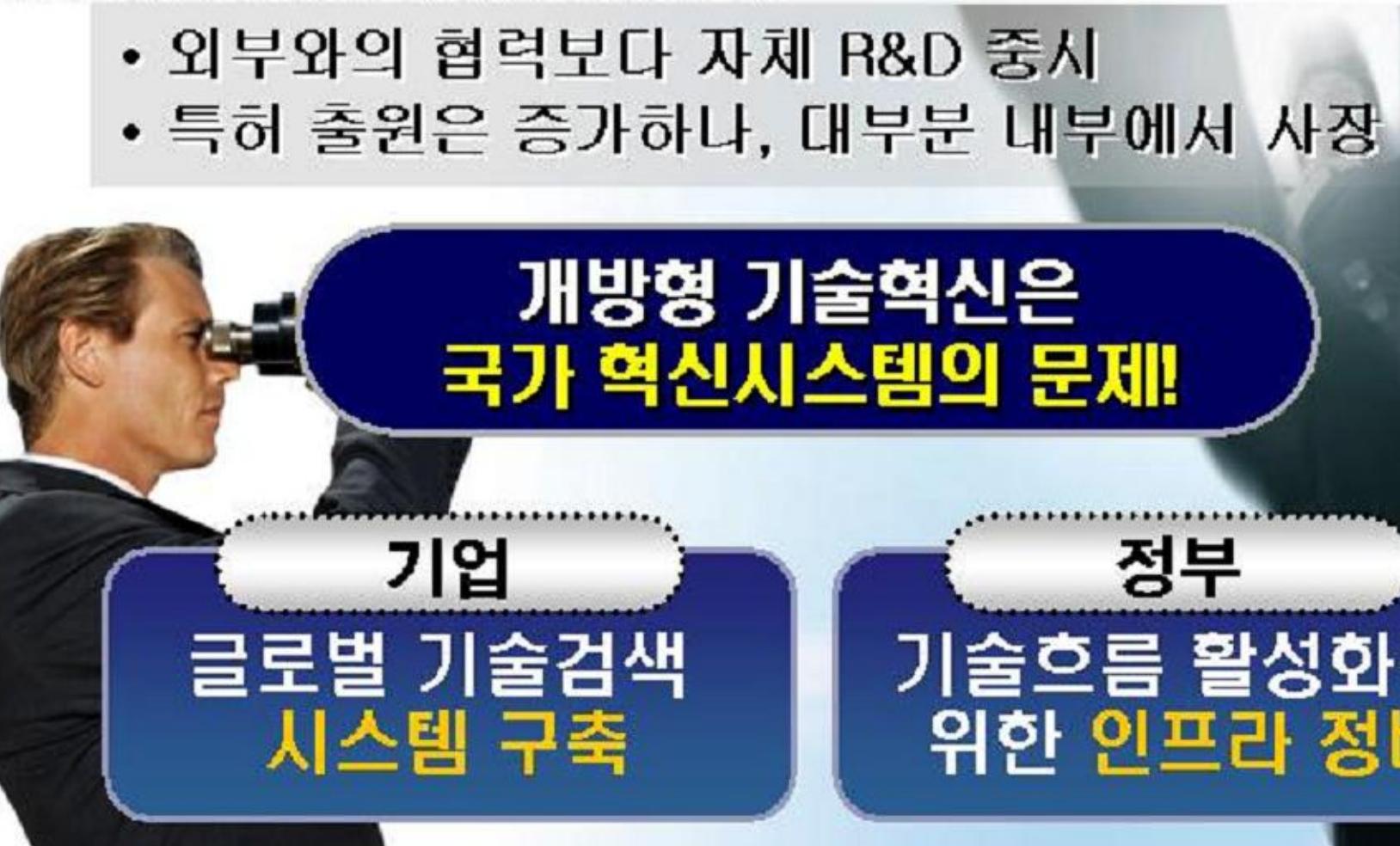
Intermediaries & Open Innovation



기업을 넘어 국가 혁신으로!

● 우리 기업의 현실?

- 외부와의 협력보다 자체 R&D 중시
- 특히 출원은 증가하나, 대부분 내부에서 사장



개방형 기술혁신은
국가 혁신시스템의 문제!

기업

글로벌 기술검색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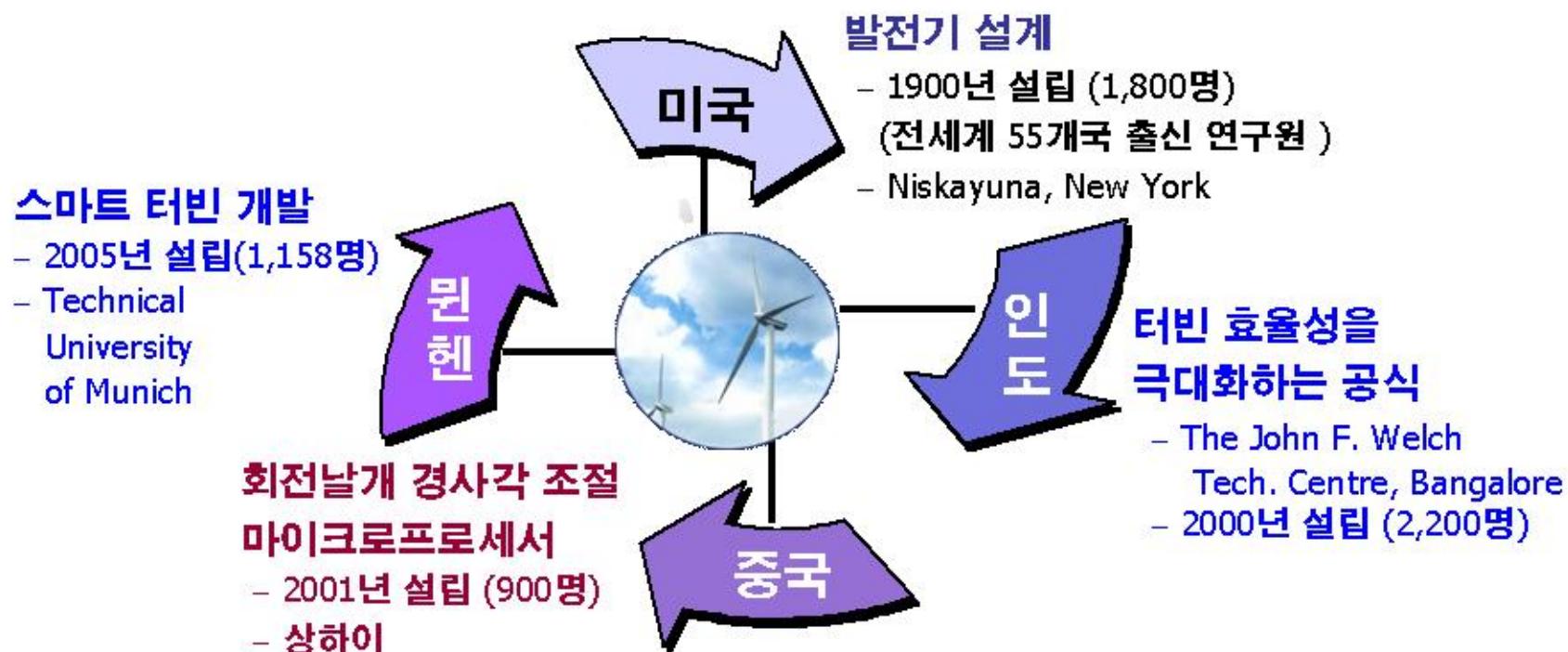
정부

기술흐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혁신의 원천을 탐색하고 도입
 - 해외에 R&D거점을 전진 배치하여 활용 가능한 인력과 기술의 범위 확대
 - Booz Allen과 INSEAD의 조사 결과 (2006)
: the share of foreign R&D sites 45% (1975) → 66% (2004)

GE의 글로벌 R&D 네트워크 성공사례



자료: Fortune, 2005. 7.25

유의사항

- 맹목적인 편승을 지양하고 개방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인식
 - “개방형 기술혁신”의 목적은 “better and faster R&D”임
 - 내부의 기술역량이 없이는 외부 조직을 통제할 수 없음
- 외부와 협력관계가 넓어질수록 조직 및 지적재산의 관리 비용이 커짐

기술자산 판매

- IP의 유지, 관리, 분류 등에 상당한 비용 초래
- 무형자산인 IP의 모호성으로 분쟁 등 법적 비용 발생

- 외부 기술의 도입시, 암묵적 지식, 노하우의 손실 가능성이 높음
- 기술혁신시스템의 개방으로 내부 기술 정보 유출 등 부작용 초래